

제목: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

말씀: 누가복음 1장 18-33절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의 하나로 알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의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 1) 사람들이 자신의 _____ 빠져 있을 때에 오셨습니다 (8-10절)
- 2) 사람들이 _____ 못할 때에 오셨습니다 (20절)
- 3) 하나님만의 _____으로 오셨습니다 (24절)
- 4) 오실 그 분의 이름이 _____라고 하셨습니다 (31절)

지난 주 헌금	
주일	
추수 감사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1장 18-33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Luke 1: 18-33 신약 86 페이지 Presider
- 말 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present tense of His Love Rev. Kim
- 찬 양 123(123) 저 들밖에 한 밤 중에 다 같 이
Praise The First Noel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온 맘 다해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With my whole heart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버리게 된 새 옷)

나는 새 것을 사용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무슨 물건을 하나 새로 구입하면 금방 사용하기 보다는 잘 모셔 두었다가 후에 사용 한다는 이야기다. 더 자세히 예를 들면 옷을 새로 구입 했을 때 곧 가격표를 떼고 금방 입지 못한다. 조금 더 보관한 후에 적절한 때에 입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버릇이 요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몸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운동량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몸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다. 바지도 사이즈를 하나 줄여야 하고, 옷웃도 이전과 같지 않다. 또한 이전에는 크게 입었지만 요즘 그렇게 입었다가는 촌사람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입지 않고 아껴왔던 옷들이 모두 맞지 않는다. 잘 모셔 놓았던 옷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정말 아까워 안타까운 마음까지 든다. 그렇다고 내 몸무게를 늘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도 겨울이라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에 두꺼운 것을 입고 입어 보지만 무언가 이상하다. 아껴 두었다가 버리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었다. 할 수 없이 지금 나의 몸에 맞는 옷을 또 다시 사서 입을 수밖에 없게 생겼다. 이제는 미리 옷을 구입하지도 않겠지만 있는 옷들을 그 때 그때 입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신앙생활은 아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를 그때그때 기대하고 그 은혜로 살며, 더 나가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용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 돌아보면 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나누기 보다는 잘 간직하는 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즉시로 나누는 것인데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은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인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숨기고 산다. 옆에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게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누라고 하신다. 오늘 받은 은혜도 받고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고민해야 한다. 오늘 받은 은혜를 일터에서 혹은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라고 하신다.

새로운 것을 받으면 곧 사용하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후히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 것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두 사용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입지 못할 옷들을 챙겨서 미안한 마음으로 Goodwill 에 갔다가 주려고 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되도록 이면 남겨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듯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여야 세상에 나누어 줄지 고민도 더 깊이 있게 하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6) 하나씩 새롭게 진행 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잘 정착되도록
- 7)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8)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교회 모임

12월 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12월 행사

12월 8일(주)	오전 11시	St. Andrew's 교회 선교 바자 참여
12월 15일(주)	오전 10시	St. Andrew's 교회 음악 예배
12월 24일(주)	오전 12시 30분	성탄 주일예배
12월 25일(주)	오전 10시	성탄절 예배
12월 31일(주)	오후 11시 20분	송구영신 예배 예정

6. 생명의 삶

1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 하신 선물로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5입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